



비료와 식량

2024년
11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무기질비료 상식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 가성비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출처 : 농어촌공사 농촌경관사진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녹색기업 선포...‘비료·청정에너지 사업 강화’

- 남해화학 창립 50주년 기념식, 2034년 매출 2조 2000억 목표
- 농업인 맞춤 기능성 제품 공급, ‘밥맛좋은 쌀’ 전용상품 개발도



8일 전남 여주시 낙포동 남해화학 본사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기명 여수시장, 김창수 남해화학 대표 등이 기념식 제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남해화학이 ‘인류를 풍요롭게, 세상을 깨끗하게, 녹색화학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남해화학은 8일 전남 여수 본사에서 비전선포식을 열고 다가올 50년을 힘차게 준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정기명 여수시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김우찬 휴켄스 대표, 아담 리처드슨 서밋 대표, 하명곤 농협케미컬 대표, 정정수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농·축협 조합장 60여명도 자리를 같이했다.

강 회장은 기념사에서 “남해화학은 1974년 설립 이후 반세기 동안 고품질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민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비료사업을 통한 농민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남해화학이 현재 처한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국내 비료 사용량이 2004년 200만t에서 2023년 97만t으로 감소한 데다 업체간 경쟁도 심화했다. 공장 노후화로 인해 수선비 부담도 커졌다. 남해화학은 이러한 위기를 비료사업 경쟁력 강화와 청정에너지 사업 추진, 친환경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타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남해화학은 앞으로 10년간 1548억원을 투자해 ▲완효성비료공장 증설과 코팅제 개발 ▲수용성 비료 생산역량 개선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 구축 ▲‘밥맛 좋은 쌀’ 전용 비료 개발과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무탄소 스팀 생산·판매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도 1552억원을 투입,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남해화학은 2034년 기준 매출액 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 500억원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창수 남해화학 대표는 “앞으로 남해화학은 농민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성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국내를 넘어 해외 비료시장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녹색화학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2024.11.11.)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 경농, '키엠스타'에서 스마트팜 기술력 선보여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키엠스타)에 설치된 동오그룹의 홍보 부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농산업 융복합토탈솔루션 전문기업 동오그룹이 국내 최대 규모 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 한층 차별화된 혁신적 미래농업 기술을 선보이며 크게 주목받았다.

동오그룹은 지난 10월 30일 개막한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2024)에서 경농의 스마트팜 전문 브랜드 ‘시그닛(SIGNIT)’의 성장세를 알렸다. 경농은 2년 전 같은 행사에서 시그닛을 처음 공개한 이후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이번 박람회에서 더욱 발전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특히 큰 관심을 받은 제품은 시그닛 복합환경제어기다. 한국 맞춤형으로 개발된 시그닛 복합환경제어기는 호환성이 뛰어나 천창, 측창, 스크린, 보일러 등 기존 기기와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어 컨트롤러와 사용자용 PC가 분리돼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모니터링과 장비 제어가 가능하다.

확장성도 뛰어나다. 온실 확장 시 장비를 추가하는 절차가 간편하며, 별도의 확장 프로그램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고, 데이터 그래프도 거의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어 사용자가 쉽게 관련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황규승 경농 스마트팜사업부문장은 “스마트팜이 농업 생산성 증대와 인력 부족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농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오그룹은 스마트팜 외에도 작물보호제 산업에서 축적한 다양한 농업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자·비료·관수·천적곤충·친환경자재·수확후관리자재 등 농산업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올 초에는 온실사업부문도 신규 출범했다. 경농의 온실서비스는 70여년간 축적된 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국내 완효성비료 선도 기업 조비는 최근 출범한 생분해성 완효성비료 브랜드 ‘그리너스(GREENUS)’를 본격 공개했다. 완효성비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비는 그리너스를 통해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완효성비료를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 한국영농신문(2024.11.6.)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5년 연속 품질만족지수 1위...‘그린바이오 솔루션 제공’



신인철 팜한농 CHO(왼쪽)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이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팜한농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작물보호제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돼,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공동 개발한 국내 대표 품질 평가 모델로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 우수성과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한다.

팜한농은 70년 이상 한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성장해온 대한민국 1위 그린바이오 기업이다.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종자, 비료 산업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과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작업시간을 줄여주는 작물보호제를 비롯해 AI·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파밍 솔루션을 고도화하며,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팜한농은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객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 고객가치 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별 고객가치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한 후에는 고객을 찾아가 제안을 반영한 결과를 상세히 피드백하고 있다. 매일 고객 대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매년 ‘고객가치 어워드’도 실시하며 고객경험 혁신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팜한농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의 소리에 더욱 더 귀기울여 고객가치와 품질을 높여나가겠다”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EBN(2024.11.6.)기사내용 인용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 (주)풍농

○ ‘아침 먹고 쌀 소비하자’...비료 기업 ‘풍농’도 동참

- 서울 마포구 풍농 본사서, NH농협은행 마포금융센터와 MOU



이동렬 풍농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엄을용 NH농협은행 마포금융센터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21일 서울 마포구 풍농 본사에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먹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패넬을 들어보이고 있다.

풍농은 21일 NH농협은행 마포금융센터와 '쌀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먹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저소득층 기부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무협약은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도농 상생을 협력할 목적으로 추진했다. 서울 마포구 풍농 본사에서 열린 행사엔 이동렬 풍농 대표를 비롯해 엄을용 NH농협은행 마포금융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2월부터 고향인 경북 영천에 매달 쌀 20kg들이 20포대를 기부하고 있다. 그는 “풍농은 60여년간 비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품질 비료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민신문(2024.11.25.)기사내용 인용

○ ‘2025년, 정부지원대상 엔피코 유기질비료 3종신청!!!’

엔피코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시면 농가부담(금액)을 덜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1일(월) ~ 12월 10일(화)

◆ 신청품목(제품명) : 혼합유기질(토토그린), 혼합유박(토토유박, 토토유박골드), 유기복합(슈퍼70)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공사-2-3-465호



혼합유기질

공사-3-3-220호



혼합유박

공사-3-3-164호



유기복합

◆ 엔피코 유기질비료의 사용효과

- 양분보유능력을 높여 양분의 유실을 막고, 식물에 적정하게 공급
- 빗물에 의한 토양 유실을 막고 가뭄해를 최소화
- 토양 입자를 결합시켜 입단구조형성
- 토양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므로 양분의 이용성 촉진
- 질소, 인산, 칼리 필수양분 함유로 작물생육 향상
-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가능 목록공시소재

◆ 혼합유기질, 엔피코 토토그린 : 아주까리유박, 채종유박 등 순수 식물성유박과 골분 등 동물성 유기질원료의 장점만을 모아서 제조되어 작물생육 및 지력향상에 좋습니다.

◆ 혼합유박, 엔피코 토토유박(골드) : 아주까리유박, 대두유박 등 순수 식물성유박 원료만으로 제조되어 양분의 흡수형태가 지효적이며, 논·밭(과수원, 고랭지, 예정지), 시설재배지 등 모든 토양조건 및 작물에 생육에 효과적입니다.

◆ 유기복합, 엔피코 슈퍼70 : 순수 식물성유박, 골분 등 동물성 유기질원료, 랑베나이트 천연 광물질 다량 함유로 질소, 인산, 칼리의 함유량이 가장 높고, 타유기질비료와 달리 고토(마그네슘)를 함유하여 작물생육향상 효과가 뛰어난 유기질 비료입니다.

※ 풍농 자료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2025년도 할당관세 한계수량 적용 요청에 대해 수입전량 변경 의견 제출 (11.5, 농식품부)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11.6, 협회)
- 무기질비료업계 현안 업무 협의(11.11, 농식품부)
- 식량안보 관련 법 분석 및 국내법 개정 자문회의 참석
 - 주 최 :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 일 시 : 11.14.(목), 9:30~12:00
 - 장 소 : 농식품부 4층 회의실
 - 내 용 : 여러 나라들의 식량안보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 비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 주 최 : 농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 일 시 : 11.19.(화) 14:00~15:30
 - 장 소 : 남해화학 서울사무소
 - 내 용 : 비료 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 애로사항 논의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집행 현황 보고(11.21, 농식품부)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국 내 】

- ‘요소 딜레마’…국내 생산 하자니 中 밀어내기 폭탄엔 ‘속수무책’
 - 中 공급 규모 따라 여전히 수입액 들쭉날쭉
정부가 국내 생산을 비롯해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산 영향력이 시장에선 여전히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 보다 수입산을 들여오는 게 원가경쟁력에서 유리한 만큼, 중국의 ‘밀어내기’에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월별 공업용 요소수 수입액을 살펴보면 중국산 비중은 현지의 밀어내기 물량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경향을 보였다.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정부의 물류비 지원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이 흐름은 과거와 유사한 상황이다. 수출을 틀어막아 국내 요소 대란을 일으켰던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은 올해 1~2월 10%대를 거쳐 3월 8.6%, 4월 1.9%까지 줄었으나 5월엔 57.9%, 6월에는 78.4%까지 커졌다. 7월(58.7%)과 8월(26.6%)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36.9%로 반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배경 중 하나는 춘분기 비료 수요 급증"이라면서 "이 시기가 지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업자들도 완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화합물인 요소를 물에 녹여 만드는 요소수는 배기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차량용을 비롯해 산업 곳곳에 쓰인다. 하지만 원가와 공정이 간단해 저가 중국산 대비 직접 생산하기엔 경제성이 떨어졌고 롯데정밀화학(당시 삼성정밀화학)은 2011년 국내 요소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국내 요소 생산 시설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생산 업체 선정 등 실질적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 확대와 국내 생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 있다"면서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거 생산 중단 역시 중국의 적극적인 밀어내기에 따라 시장 논리에 의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면서 "안정화 논리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중국산 수입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국내 생산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이 생산보다 경제성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면서 "국내 생산 여부는 정부 지원 규모나 방식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2024.10.22.)기사내용 인용

□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장 인터뷰

농업은 경영이다. 생산물을 팔고 이윤을 남겨야 농민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생산물의 값어치, 즉 농산물 가격은 농민의 손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날씨, 수입 정책, 기호 변화 등 변수가 많다. 반면, 농산물 가격 만큼 중요한게 원가(영농비용)이다.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것을 빼고 나면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비용이 원가의 대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국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영농의지가 유지되도록 농업의 원가를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장

이 역할을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한다. 필수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보급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다.

특히 요즘 같이 농업현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자율 주행 농기계와 같은 첨단 농기계가 주목받고 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해법 중 핵심적 요소다. 이를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것도 이 부서의 일이다. 첨단기자재종자과를 이끌고 있는 문태섭 과장에게 부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첨단기자재종자과의 소개와 올해 중점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단기자재종자과는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 기반 조성 및 보급 촉진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관련 산업 육성 등 농기자재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다. 이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을 운용한다. 농기계 임대, 농업기계 구입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종자산업 육성 정책·기반 구축으로 국내 품종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마늘·양파 주산지 전체 시·군으로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첨단 농기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새만금 100h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여 농업 기계화를 제고와 첨단 농기계 보급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2024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를 개최해 첨단 농기계 전시·홍보 및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 불안 요인 지속 상황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종자산업 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종자산업 기반 구축,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내 종자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해 국내 우수품종의 홍보와 종자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료 관련 정책 지원과 노력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세이나,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전 등으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비료는 종자, 농약과 함께 농업인에게 필수 농자재이며 농업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농자재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 원료 확보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료업체에는 원료구매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할당관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법」이 제정,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지정, 선도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수입선 다변화,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지원, 비축 확대 등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원자재 공급망 동향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비료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하겠다.

- 기후 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품종 개발 필요성이 많이 이야기 되는데, 이와 관련된 종자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근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병해충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내재해성·내병성 등 기후변화 적응 품종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골든시드프로젝트와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위한 R&D 투자 및 산업인프라 확충 등으로 기후변화대응 재배 안정성 높은 우량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첨단정밀육종활용 고부가산업화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작물별 육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내재해성·고기능성 품종을 개발하고, 종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종자 가공처리,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 육성 품종 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육종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품종 개발 및 연구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한국영농신문(2024.10.24.)기사내용 인용

□ 비료업계 경영난에 탄소중립 연구개발 한계…정부가 지원해야

○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대회

- 완효성 비료·환경친화형 비료 등 온실저감 효과…소비 증가 불구
- 산업 위축에 신제품 개발 등 부진, 개발·생산시설 뒷받침 목소리

무기질비료업계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비용과 생산시설 유지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춘근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탄소 중립과 비료 산업: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비료협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농식품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분야도 과학적 시비처방으로 적절한 양의 비료를 사용해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고 질소질비료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3% 줄인다.

이에 무기질비료업계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완효성 비료를 개발·판매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 완효성 비료와 기능성 환경친화형비료 등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완효성비료 출하량은 2010년 2만7000톤에 불과했지만 2020년 6만600톤, 2022년 11만2000톤, 2023년 10만8000톤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무기질비료산업이 점점 위축되면서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 등에 나서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 소비 감소와 수출 가격 경쟁력 악화로 2022년 203만9000톤이었던 무기질비료 생산량이 2023년 175만톤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황산암모늄 수출이 46.4%, 내수 원예용 비료와 맞춤형비료가 각각 9.4%, 18.5% 감소한 영향이다. 무기질비료 소비량도 탄소 중립과 공익직불제 시행 등으로 무기질비료의 적정시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량은 감소세다. 실제 2010년 114만톤이었던 비료협회 회원사 출하량은 2022년 108만4000톤, 2023년 97만7000톤까지 줄었다.

결국 비료업체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 비료협회 회원사의 비료부문 경영실적은 2017년 -279억원, 2019년 -538억원, 2021년 -445억원, 2023년 -311억원 등 매년 수 백 억원의 적자에 직면했다. 이 같은 경영 악화는 연구개발비 축소로 이어졌다. 주요 비료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입 비중은 2023년 0.07~0.6% 수준에 그쳤다.

박춘근 전무는 “무기질비료는 제조원가의 약 70%를 수입 원자재가 차지하고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등 고정비용으로 원가가 구성된다”며 “비료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은 신규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기질비료산업이 친환경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춘근 전무는 “세계 최대 비료 기업 중 한 곳인 야라(YARA)는 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제품을 개발한 초기 단계에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농업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 비용과 생산시설 유지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생산업체·농협·농민·정부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무기질비료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0.29.)기사내용 인용

□ 반드시 늘려야 할 핀셋 농업예산 5가지

22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전년대비 4104억원이 늘어난 18조7496억원으로, 긴축 재정을 강조해 온 현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본다.

문제는 내용이다. 자연재난 증가, 대외 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농업예산 핀셋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한농연이 꼽은 5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은 △농식품바우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차보전)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5가지다. 한농연은 이같은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12일 국회 앞에서 회원 1만 명이 참여하는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예산철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졸속·밀실 심사 논란이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1.5.)기사내용 인용

□ 농업소득 높여 농업인 실익 증진...농업·농촌 활력화 역량 결집

농협이 농업소득을 높여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하고, 농업·농촌 활력화에 범농협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목표로 2025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별 핵심과제를 설정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구현을 위해 범농협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취가를 높이면서 영농자재 및 사료가격 안정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전사적으로 나선다. 또 무이자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1조원 확대된 16조원을 지원해 돈 버는 농업을 위한 지원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 저금리 영농자금 지원, 자연재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업인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쌀 적정생산·소비촉진 나서고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구축,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등 온힘

▲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문**=농업경제의 내년 사업은 경쟁력 있는 농업경제 구현을 위한 농산물 생산·유통 혁신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에 나서고, 원예농산물 종합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 노후화된 산지 유통 시설은 현대화와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비료·농약 등의 영농자재 가격 경쟁력을 높여 농업경영비 절감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농작업대행단을 신설하고, 농기계 광역공동수리지정점을 늘려 농업인의 영농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복안이다.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거점물류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개소와 직접배송 거점 50개소를 육성하고, 산지온라인 맞춤 지원으로 정부 온라인도매 시장의 농협 참여를 확대한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1.5.)기사내용 인용

□ 한농연 ‘5대 농식품사업 예산 732억 증액하라’

○ 후계농육성·사료구매자금 추가,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등 주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홍식, 이하 한농연)는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농식품 핵심 정책 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237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324억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20억원) △사료구매자금(30억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121억원)을 선정하고, 5개 사업에 총 73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농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한농연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 보장을 위해 324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청년층의 농업 부분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도 예산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지난 8월 조기 소진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억원이 삭감된 6000억원이 책정됐기 때문. 이에 대해 한농연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수혜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축산 농가가 경영비 증가와 도매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대상을 전 축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예산 확대도 주문했다.

한농연은 “자연 재난 증가, 대외 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국내 농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67개 시군구 연합회 회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농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농업 예산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1.5.)기사내용 인용

□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유예 3+1년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이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신고기간이 유예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해 악취관리 등 이행계획을 제출해 시·도에서 인정받을 경우 추가 신고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지침을 각 특·광역시와 도에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이달 중 추진될 예정이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지침서에 안내되지는 않았지만 신고기한 추가 연장은 3년을 기본으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년을 추가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시설 설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재검토 중인 만큼 논의를 마치고 확정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3+1년이 아니라 2+1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적용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시 용성농협 조합장)은 “암모니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새로 정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할 것임을 감안하면 3+1년이 아니라 2+1년이 될 수도 있다”며 “저감시설 관련 기술, 시설설비업체 선정, 설치기간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 지원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농수축산신문(2024.11.5.)기사내용 인용

□ 국내농업, 트럼프 2기 정책 따른 선제 조치 필요

○ 관세·비관세 제재 가능성, 농산물 수입 확대 전망도

최근 열린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 농업도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에 따르면 당은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농경연은 무역 적자 해소의 수단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비관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중에서 우리나라는 8위인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인 것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여기에 미국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에 대해 최혜국 지위 철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표방하고 있다. 즉 대중 수출 감소에 대비해 농산물 수출의 대체 시장의 후보로 우리나라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농경연의 설명이다.

트럼프 정부가 기후 변화 규제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려는 방침을 내세우는 점도 우리 농업에는 악재다. 비료와 농약 사용 등 농업 부문의 환경규제도 완화되면 미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더 저렴해진 가격을 내세운 미국산 육류, 곡물 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농경연은 “미국 중심 통상정책 강화, 대중국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국산 농식품 수출제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특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가격보다는 품질과 신뢰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상품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 금강일보(2024.11.10.)기사내용 인용

□ 농해수위 내년도 농업예산 2조2000억원 증액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2조 1989억6600만원 순증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이같이 처리했다.

가장 주목받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정부가 올해(81억원)보다 대폭 편성한 2078억원 중 1119억 2600만원을 감액했다. 대신 농작물재해보험에 같은 액수를 증액했다.

농가 경영비 안정을 위한 예산도 대거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 빠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255억원 증액됐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예산 2196억 6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모든 축종에 대해 사료구매 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지도록 이차보전 사업 예산 29억1800만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엔 한우농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돼 있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엔 없었지만 상임위에서 119억8000만원 신규 반영했다.

농해수위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예산도 412억5300만원 더 확보했다.

공익직불제 예산도 확충됐다. 전략작물직불사업 1720억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 135억4900만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9억1900만원 각각 늘었다.

농해수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대책비를 1200억원 증액해 올해(2800억원) 수준으로 복구했고,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1494억3100만원, 배수개선 예산 1816억8800만원 증액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러 의원님들 주신 의견 바탕으로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2024.11.14.)기사내용 인용

□ 농산물 수급안정 키는 ‘국내 생산지원’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이 돌아왔다. 내년도 국가 살림규모를 결정짓는 시기인 만큼 모든 관심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18조7496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4.5% 감소), 통일부(3.7% 감소), 행정안전부(0.5% 감소), 산업통상자원부(0.2% 증가) 등 주요 부처의 지출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되거나 동결된 데 반해 농업예산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보조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농기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가구당 농업경영비가 2021년 2423만원에서 지난해 2678만원으로 10.5% 증가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마저 중단될 경우 농가 부담이 더욱 늘어나리라 우려된다.

이는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농비 부담으로 적정 시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 생육 환경 변화로 품목을 가리지 않고 수급불안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무기질비료 지원이 필수다. 여당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농촌 현장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에 의존한 농산물 수급 정책이 장기화하는 만큼 현장에선 국내 농업생산을 뒷받침하는 지원 확대에 목말라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 지원액은 2022년 5691억원, 지난해 4012억원으로 최근 2년 동안 9703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지원은 세수 감소라는 부작용을 불러올뿐더러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금액의 일부만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사업에 지원해도, 농산물 수급안정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반갑게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제 공은 예산안 본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 정책의 열쇠는 수입이 아닌 국내 생산 지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 농민신문(2024.11.18.)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국 내 】

□ 피해벼 매입가격 확정...평년비 3.85% ↑

정부가 2024년산 피해벼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 1등급과 비교해 잠정등외A는 80.77%, 잠정등외B는 67.95%, 잠정등외C는 55.13%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평년(2019~2023년) 잠정등의 규격에 비해 3.85%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4일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벼멸구, 호우 등의 피해벼의 경우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수매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가 9월 27일부터 10월 15일 까지 농가의 피해벼 수매희망물량을 조사했다. 지자체의 피해상황 집계 결과, 올해 수매를 희망하는 물량은 조곡기준 4만6457톤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 피해벼 수매희망물량 1만2665톤의 3.5배 수준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자체가 수집한 피해 벼 시료를 계측하고, 농민 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벼 검사 규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료계측 결과에 따르면 올해 피해벼의 재현율이 전년 대비 높게 나와 잠정등외A 등급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과는 별도로 정부가 피해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쌀값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0.29.)기사내용 인용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천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ha)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①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②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하였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하였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10.30.),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농가자재신문(2024.10.30.)기사내용 인용

□ ‘2024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농촌진흥청은 30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오리움에서 ‘2024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자체 발굴한 혁신 우수사례와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등 6건을 발표했다.

농진청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자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과제를 추진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공서비스디자인 활동 사례, 협업사례 3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노동력 부족, 이제 로봇이 대체한다!’, ‘폐비닐,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농림축산부산물 자원 재활용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오차 비료의 공정규격 신설’ 3건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로 ‘맞춤형 건강 식단 메뉴젠’, ‘가루쌀 소비 활성화’ 2건과 협업사례 1건 등 모두 6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버려지는 폐비닐, 인삼지주대로 재탄생!’이 수상했다. 내구성이 뛰어난 재생 플라스틱 인삼지주대 개발·보급으로 인삼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개당 110원)하고 폐자원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맞춤형 건강식단, 메뉴젠’이 수상했다.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건강식단 작성 시스템 개선과 당뇨 관리를 위한 식품 정보 확대 제공 등 국민 건강증진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미디어펜(2024.10.30.)기사내용 인용

□ 쌀 소비량 조사 방식 개선 필요

○ 쌀 수급상황 판단 핵심 통계, 조사 표본 수 확대 등 시급

쌀 수급안정 정책에 기본이 되는 쌀 소비량 조사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나오고 있다. ‘위기의 쌀·한우산업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4 제6분과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교수는 통계청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신곡 수요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쌀 소비량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교수는 “통계청의 쌀 소비량 조사를 믿기엔 찝찝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쌀값 신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인당 쌀 소비량은 2020년대 들어 연평균 0.8% 감소에 그쳤지만, 쌀값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역계절 진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산은 약 26만톤 과잉 예상에 따라 정부가 총 45만톤을 시장격리했지만 이듬해 단경기 평균 쌀값은 2021년 수확기 대비 21.8%가 하락했다. 특히 2023년산은 한 번의 예외 없이 쌀값이 지속 하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통계청의 쌀 소비량 조사가 쌀 수급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통계이면서, 이를 토대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 유무는 물론 물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쌀 소비량 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양곡소비량 조사는 농가 500가구와 비농가 9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표본 수가 작다는 것. 여기에 김 교수는 통계청이 양곡소비량 조사에서 외식 부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외식 횟수를 토대로 가정 내 끼니 당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외식 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럴 경우 외식업종별 쌀 소비 패턴이 다른 점은 외식 쌀 소비량 추정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김종인 교수는 “쌀 소비 감소 패턴을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하면 참값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락하고 있는 쌀값을 두고 산지 유통업체들의 노력은 물론 정부가 쌀 유통시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민간이나 농협 RPC(미국종합처리장)에서 쌀값 하락을 우려해 수매가 책정에 소극적인 것도 쌀값 반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정부도 구곡과 신곡의 혼합 판매 관리를 적극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1.1.)기사내용 인용

□ ‘물가안정용 농산물 수입’ 효과 미미

○ 농경연, 보고서 통해 지적

금사과 논란 등 근본 해결 못해, 생산기반 늘려 자급률 제고를

기후위기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자 정부는 ‘수입 확대’를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입 확대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자급률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농업 대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개방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농산물 물가가 낮아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올초 ‘금(金)사과’ 논란 속에 들끓었던 ‘농산물 수입 확대’ 주장을 무색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4월 “지금 사과값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이라며 농산물 수입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가격 하락의 관계는 험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급률은 농산물 가격과 긴밀성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쇠고기·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자급률이 떨어질 때 가격이 오르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정대희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안정화를 우선해야 한다”며 “특히 기후플레이션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약화하면 해외의 기후플레이션 충격이 국내에 그대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미국산 축산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실행관세가 낮아졌는데도 수입 단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연구도 있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의 미국 내 판매가격과 국내 수입단가 간 차이가 FTA 이후로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FTA 특혜 관세 혜택이 국내 소비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 농민신문(2024.11.3.)기사내용 인용

□ 쌀 통계의 중요한 축, 감모율



김종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

최근 쌀 통계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연초에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주식용 쌀 연간 소비량이 3년 연속 56kg대를 유지한 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소비 감소 추세가 크게 완화했다고 기뻐했고, 일부에서는 소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통계라고 했다.

쌀 생산량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과잉규모가 9만5000t으로 격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는 수확기에 격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20만t을 격리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쌀 생산량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 필지 확대와 감모율 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통계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생산량과 소비량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핵심 두 축이 시장 수급과는 괴리를 보이면서 오히려 쌀시장 안정을 위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 중요한 한걸음이 쌀 통계 중에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쌀 감모율의 재산정이다.

감모란 수확부터 저장과 도정, 유통 등의 과정에서 농산물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쌀 감모율은 생산량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의 쌀이 손실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는지를 계측하는 지표다.

정부는 쌀 감모율을 활용해 실제 쌀 소비량을 예측해 시장격리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쌀시장 관계자들 또한 쌀 수급 균형 여부와 향후 쌀 가격 전망을 할 때 감모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쌀 생산량이나 소비량 통계가 통계청 주관 아래 매년 발표되는 것과는 달리 쌀 감모율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가 아님에도 쌀 수급 판단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11년 연구용역을 거쳐 제시된 쌀 감모율 적정 수준인 7~8%를 활용하고 있다. 처음 쌀 감모율 수치에 관해 접한 사람이라면 예상보다 높은 손실 비율에 놀랄지도 모른다. 요즘과 같이 쌀 유통이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도 7~8%의 쌀이 수확

과 유통 과정에서 손실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우리와 쌀 유통과 소비 과정이 매우 유사한 일본은 쌀 생산량 중 약 2%가 수확과 유통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쌀 감모율 1% 차이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 기준 약 4만t에 해당하므로 쌀 감모율 산정에 따른 쌀 유통량 변화폭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쌀 감모율을 새롭게 산정하는 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감모는 수확과 저장, 도정, 소비지까지의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쌀 감모율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쌀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쌀 감모율 추정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2011년 이후 쌀 감모율 재산정 연구는 산발적으로 이뤄졌으나, 실태조사를 포함한 실증연구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

우리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쌀 수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인 쌀 감모율,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갈 시점이다.

※ 농민신문(2024.11.3.)기사내용 인용

□ 쌀에 새로운 경험·재미 접목...젊은층 사로잡자

○ 밥 접근 방식 급속하게 변화

즉석·기능성 식품 선호 뚜렷, 판촉 방식 바뀌 소비 확대를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비롯한 젊은 소비자들이 ‘쌀밥’에 접근하는 방식이 급속히 바뀌며, 쌀 판촉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즉석밥처럼 편의성은 물론 기능성까지 갖춘 식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듯 소비자를 중심에 둔 쌀 생산·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통계를 보면 MZ세대들이 쌀밥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확연한 변화가 드러난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 1~10월, 20~30대 소비자들의 ‘냉동 간편조리식품’ 관련 검색어 1위는 즉석밥 브랜드 ‘햇반’이었다. 그 뒤로 다이어트 도시락, 사과떡볶이, 샐러드, 냉동 도시락 등이 이어졌는데, 이는 MZ세대도 여러 식품 중 ‘밥’에 대한 관심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을 두고 학계·산업계는 쌀과 밥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6일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개최한 ‘쌀의 가치 재발견, 쌀의 효능과 올바른 인식’ 심포지엄에서

쌀 편집숍 ‘동네정미소’를 운영하는 김동규 대표는 “MZ세대를 두고 ‘밥솥보다 즉석밥과 친한 세대’라고 표현한다”며 “재미를 따라 움직이는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쌀도 커피와 와인처럼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네정미소는 성격유형검사(MBTI)별 쌀 품종 패키지, 개인 취향별 쌀 추천, 캠핑용 캔 쌀 세트 판매 등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러너들을 위한 쌀, 치매환자를 위한 쌀 등 맞춤형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쌀 푸드테크’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는 “흔히 국산 쌀의 원가 경쟁력 문제를 말하지만, 문화적 요소가 있거나 관심거리가 되면 소비자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한다”며 “영하 45℃ 급속냉동 기술을 활용해 수출까지 하는 ‘냉동김밥’처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쌀 가공제품으로 소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2024.11.7.)기사내용 인용

□ 가을배추 재배면적 지난해와 비슷…김장철 배추 수급 이상 무

○ 가을무, 유례없는 고온에 재파종 많아, 향후 작황 반영, 생산량 산출 변동 있을 듯

김장철 성수품인 가을배추의 올해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김장철 배추 수급에 큰 불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2998ha, 가을무 재배면적은 5003ha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1.2%, 1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가을 작기 배추와 무를 파종·정식하는 지난 7~9월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27.2일로 2022년 8.9일, 지난해 13.1일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9월 강수량과 일 최대 강수량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0mm가량 증가, 호우피해도 발생해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농수축산신문(2024.11.8.)기사내용 인용

□ 소농직불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 직불제, 농업 지속적 발전을 위한 수단

환경의무 준수·농업환경보전 활동 전제, 지키는 사람 많으면 농촌사회도 변화

11월부터 농민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발표(2024.10.29. 보도자료)에 따르면 128만여 농가와 농업인에게 약 2조 3천여억 원이 지급된다.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

금은 대상 농가가 52만 호이고, 총 6,713억원이 지급된다.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대상 농업인은 77만 명이고 총 1조 6,371억원이 지급된다. 여기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는 2023년 49만 호에서 금년에는 52만 호로 증가하였고, 지급 면적(15만 ha→16만 ha)과 지급금액(5,875억 원→6,713억 원)이 모두 증가하였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

반대로, 면적직불금은 작년에 비해 지급대상(79만 명→77만 명), 지급면적(96만 ha→91만 ha), 지급금액(1조7천억 원→1조6천억 원)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0.5ha 이하 대상자는 작년 73만 건에서 올해 75만 건으로 증가하였고, 0.5ha 이상 면적의 대상자는 감소하였다. 소농중심 농업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진 직불제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직불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재검토하고 소농직불제의 점진적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불제는 농가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아니다. 혹자는 농산물 생산이 국민의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정책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아전인수격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농업분야에서 1960년대부터 논의해 온 직불제는 복지성 보조금도 아니고, 과거 선행 활동에 대한 격려금도 아니다. 전적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말하자면, 2차 대전 후 일률적으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농가에게 특혜를 주던 기존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폐지하고,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면서 환경보전 공익도 증가시키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직불제는 각각의 직불제마다 분명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유기농업직불금, 환경보전지역직불금, 청년농직불금, 자연계약지역직불금 등 그 명칭에서도 정책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우리 농정에서 많이 참고했던, EU의 기본직불금(Basic Payment)은 농약 및 화학비료 투입 감소, 토양보전 및 수질보전 등과 관련해서 모든 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직불제를 통해서 기존의 집약적 농업을 저투입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유럽 국가들의 질소 및 인 오염이 크게 개선되었고, EU의 농업분야 탄소배출도 감소하였다. 이런 EU의 기본직불금 체계 내에서 1ha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 소농제도(Small Farmers Scheme)는 이들 소규모 생산자의 기록을 모두 살펴볼 행정부담이 커서 그냥 환경준수의무를 배제한 것이다. 대신, 이들은 다른 보조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이 환경의무를 준수하고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한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EU의 소농제도는 단지 소농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다.

직불제는 소득지원을 조건으로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농가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의 농업활동을 일정한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한 준수의무나 규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품목을 지정해서 생산을 장려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전환하거나 특정한 역사적 유적이나 문화적 활동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이런 활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사회가 건강하다면, 위반하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이것이 분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농촌사회가 변할 수 있다. 소수의 위반자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농업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소농직불제는 정책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에게 1년에 130만 원을 주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냥 농촌에 남아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다면 이것은 농업예산에서 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주는 복지부 예산에서 할 일이다. 소규모 고령농의 경우 노동 능력의 저하에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가 더 집약적으로 투입되어 환경피해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집약적 생산활동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농업인을 국가가 돌봐야 하는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당한 산업활동으로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전문직 직업인임을 농업인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1.8.)기사내용 인용

□ ‘K 농기자재 알리자’ 농식품부, 독일 등 주요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제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우수 농기자재에 대한 집중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게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11월은 세계적인 국제 농업박람회가 집중돼 연초부터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의사가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각 박람회별 구매의사가 높은 해외 구매업체를 사전 발굴하고 수출상담회

진행 등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협약(MOU)·구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12~15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열리는 유로티어(EuroTier) 2024에는 동물용 의약품, 사료, 축산농기계 등 총 22개사가 참여한다. 혁신 기술을 통한 가축 사육·관리 부문의 세계적인 전시회인 만큼 축산 관련 제품 수출 확대에 힘을 예정이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오는 13~15일 개최되는 그로우테크 엑스포(Growtech EXPO) 2024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국제 농업 전시회다. 국내 비료업체의 동남아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비료, 친환경농자재 등 17개사를 중심으로 한국관을 마련한다.

오는 20~23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그로우테크 안탈리아(Growtech Antalya) 2024는 세계 농업관계자들이 온실기술, 관개시스템 등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 박람회다. 이에 농기계·시설자재 등 10개 업체가 참여해 온실 피복재, 자동 농산물 재배시스템 등 국내 온실 관련 제품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도 국내 농기자재 업체 8개사와 함께 참여하는 만큼 사전협의를 통해 참가업체 간 교류행사를 마련해한다.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상담회(BKF+)와의 연계에도 나선다. 정부는 친환경농자재, 사료 등을 중심으로 구매업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연말까지 수출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아주경제(2024.11.10.)기사내용 인용

□ 국제이주 문제와 글로벌 식량안보



지성태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국내 농업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다. 외부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이 깊어져 농산물 가격 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전쟁과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돼 농식품 수입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이와 같은 위기 요인은 상호간에 전이성을 가진다. 노동력 부족은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전쟁은 노동력 유출을 촉진해 유출국의 농업생산 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입국의 농식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주는 지역과 산업간에 이뤄지고 주요 원인은 소득 격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의 순리처럼 더 높은 소득으로 더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력은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부문에서 공업·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했다.

최근의 특징은 지역 범주가 국가간으로 확대됐고, 같은 산업부문으로의 이주도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한국만 보더라도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아시아 전역에서 유입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자국의 농업에 종사했던 농민이다. 이러한 양상은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나타난다.

국제이주는 국가간 부를 분배하는 순기능을 한다. 개발도상국 농촌을 다녀보면 해외로 이주한 가족이 송금한 돈으로 지은 주택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해외에서 모은 돈으로 고향에서 창업한 이주노동자 출신 주민도 적지 않다. 이는 국제이주가 개도국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루이스 전환점’ 이론의 지적처럼 농업부문에서의 과도한 노동력 유출은 결국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생산비를 증대시켜 농가의 실질소득을 저하시킨다. 국제이주는 농업부문에서 유출된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에 자국 내 공업부문에서는 저임금 노동력 유입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도시로 이탈하고 해외 이주노동자로 유출돼 루이스 전환점을 지나친 지 오래다. 최근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남미의 과테말라를 예로 들어보자.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과테말라는 176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미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의 19%가 이주노동자의 송금이다. 즉 과테말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주축 산업이 부재하고 해외 이주노동자의 송금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언어 장벽과 기술 부족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 전체 인구의 55%가 빈곤층이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소득만으로 빈곤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정작 과테말라 농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농촌지역 빈곤이 더욱 심화해 해외이주를 더 부추기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주가 이슈화돼 다양한 논의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이주 문제가 국내 농업 발전,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농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 농민신문(2024.11.11.)기사내용 인용

□ 농업 GDP 비중, 4.3%에서 1.8%로 '뚝'...전세계 농업 비중은 늘어

우리나라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4.3%에서 2022년에는 1.8%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2000년대에도 계속돼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OECD가 이달 발표한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2024'에 따르면 이 기간 전세계의 GDP 중 농업의 비중은 평균 2.9%에서 3.8%로 늘어났다.

농업의 고용 비중은 2000년 10.6%에서 2022년 5.4%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농업 기피 현상,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등을 시사한다.

OECD에 따르면 전체 농업 생산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기간 25%에서 44%로 증가한 반면 작물 생산의 비중은 이에 반비례해 감소했다. 이는 소비자의 변화된 식생활 패턴에 맞춘 축산업 중심의 농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농식품 무역은 수출이 0.3%p 증가, 수입이 0.4%p 증가했으나 세계 평균 수출이 1.6%p 증가, 수입이 1.1%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변화폭은 작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많은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농업의 변화와 관련해 OECD는 향후 스마트 농업 확대, 농업재해보험의 개선, 환경 친화적인 축분 관리,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권고했다.

※ 데이터솜(2024.11.11.)기사내용 인용

□ 고환율 대비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 원·달러 고환율...농가 재산성 악화, 농자재 구입비·안정자금 지원 필요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전망에 따라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고환율은 농산물 생산비를 끌어올리지만 수요 기반을 약화시켜 농가의 재산성을 나쁘게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고점인 1440원까지 높아질 전망도 나오고 있어 고환율을 대비하는 농정이 요구되고 있다.

고환율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그중 농가 경영비 상승 압박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필수 농자재인 비료·사료 등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환율은 원유 가격을 높이는 주 요인이 된다. 유가의 향방에 따라 가스비·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전기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시설재배 농가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용 면세유 지원규모는 줄고 있다.

또 고환율은 금리를 끌어올려 농가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농가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농가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 부채는 4258만원으로 2022년 대비 18.7%나 높다.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10% 상승에 그쳤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50세 미만 농가의 부채가 2018~2022년 평균 1억2745만원이다. 특히 농업 후계 세대의 금융 리스크가 높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환율이 국내 물가를 밀어올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내수 부진으로 농산물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는 농업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2018~2022년 사이 1가구당 과일 구매액은 9.3%, 채소 구매액은 6.9% 감소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고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고환율을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료·비료 등 필수 농자재값 급등을 대비해 구입자금·인상차액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농가부채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 영농·생활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확대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 농민신문(2024.11.18.)기사내용 인용

□ 쌀의 영양학적 가치 국민 인식 전환 필요

○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심포지움 열어... 강재현-정혜경-이기원 교수 주제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6일 농협본관에서 '쌀의 가치 재발견, 쌀의 효능과 올바른 인식'을 주제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강재현 성균관의대 서울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쌀밥의 의학적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한식과 서양식의 다이어트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 한식이 양식에 비해 허리둘레가 더 많이 감소했으며(한식 -5.1cm, 양식 -3.4cm) 당대사 기능개선 효과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쌀은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완전식품이며,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쌀 중심 식단이야말로 성인병을 예방하는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한 식생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의 영양학적 효능과 인문학적 가치' 주제발표를 맡은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인에게 쌀의 의미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같다"며, "쌀밥이 영양학적으로 비단뿐 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쌀에 대한 영양학적 접근은 물론 국민의 식습관이나 식생활, 문화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는 '최신 푸드테크 트렌드와 쌀 가공식품이 나아갈 길' 주제발표에서 "푸드테크는 먹는 것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발(創發)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그린바이오와 팜테크를 연계하여 쌀에 적용하면 소비자 맞춤형 간편식·대체식품과 같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고질적인 쌀 산업 문제의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농협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영농신문(2024.11.19.)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생산·출하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9월	2024년 9월
생 산 량	2,397	2,039	1,750	1,320	1,341
출 하 량*	2,429	1,860	1,769	1,399	1,332

* 전년 이월분 포함

※ 협회 회원사 기준(수출 포함)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달러)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요 소	366	597	868	650	469	429	402
암모니아	437	672	957	936	580	457	400
D A P	485	749	948	859	638	528	592
염화칼륨	271	363	633	965	533	346	330
환 율 (매매기준율)	1,117	1,171	1,232	1,351	1,295	1,317	1,350

※ 관세청 무역통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6 무기질비료 상식

□ 남·북한의 흙 가꾸기와 신체 건강 <전>

이덕배 농축생태환경연구소 대표(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전 토양비료학회 회장)가 협회에 기고한 글을 11월~12월 소식지에 전, 후편으로 게재합니다.

인간의 건강은 선천적 요인, 심신의 생활 태도, 그리고 음식물의 종류와 섭취량에 따라 결정된다. 토양 건강도 흙을 만드는 바위의 종류(토양모재), 기후, 그리고 비료의 종류와 사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덕배 농축생태환경연구소 대표

인간은 선천적 요인은 어찌할 수 없지만, 몸과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알맞게 섭취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토양도 모재와 기후야 어찌할 수 없지만, 비료의 종류와 양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가꿀 수 있으며, 풍성한 농산물로 경제 활동도 가능해진다.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원인 내가 토양학이나 비료학, 식물 영양학 강의 요청을 받게 되면 묘한 흥분을 느끼곤 한다.

매번 요청되는 강의의 주제와 요구사항이 다양하기에 늘 새로운 자료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흙을 잘 알지 못하여 돈을 들여 땅에 뿌린 비료가 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농작물에 잘 흡수되려면 토양 pH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산성토양이나 알칼리토양에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비료만 몽땅 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흙을 잘 알고 가꾸면 비료값도 줄이면서도 농산물도 잘 거둘 수 있지만, 교육생들에게 흙을 잘 알게 해주는 강의 기술은 만만하지 않다. 측정도 간단하고 술하게 들어온 토양의 산성화 문제도 그렇다.

흙은 몇 가지 원인에 의해 산성화와 알칼리화가 진행된다. 첫째, 암석의 종류에 따라 산성도와 알칼리도가 결정된다. 바위가 부서져서 흙이 되는데, 흙 1cm가 생성되는데 대략 20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산성 계통인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을 모재로 하여 생성되었기에, 태생적으로 산성화가 진행되는 구조를 안고 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둘째, 강수량이 토양 pH를 결정한다. 비가 많은 지역은 산성토양이 만들어지면서 알루미늄, 수소, 망간의 독성이 나타나고 인, 칼슘, 몰리브덴, 마그네슘은 결핍된다. 한편 비가 적은 사막 지방에서는 알칼리토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토양에서는 철, 인, 아연이 결핍되고 칼슘, 마그네슘, 칼리는 과다하게 집적된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토양 pH는 5.5~7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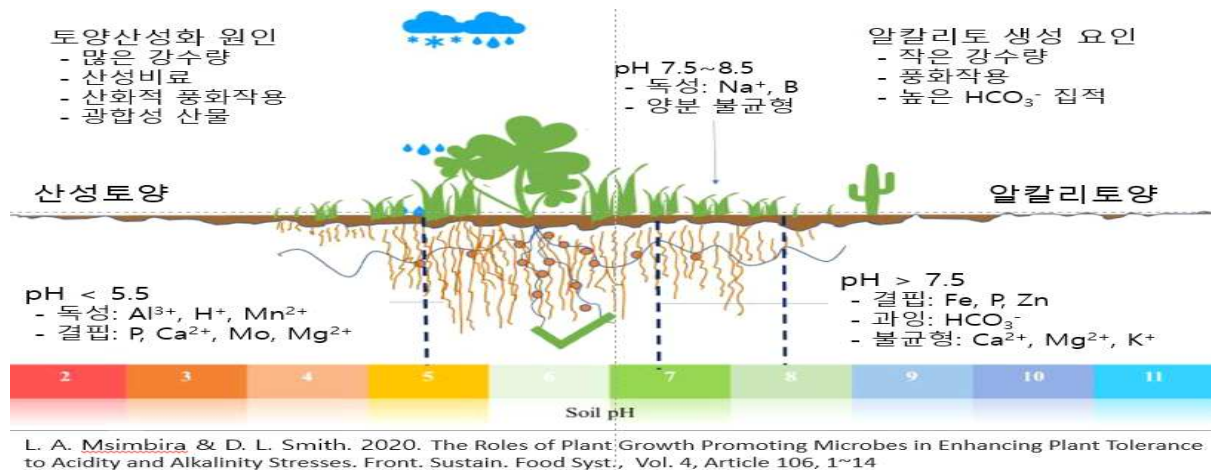


그림 1. 토양 산성화와 식물의 생육

우리나라는 몬순아시아 기후대에 위치해 6월부터 9월까지 연 강수량의 60%가 내린다. (그림 2) 이런 기후조건이기에 흙에 물을 가두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러나 밭농사에서 는 물을 빨리 빼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흙탕물과 함께 알칼리성 양분인 칼슘, 마그네슘이 다량 유실된 결과 토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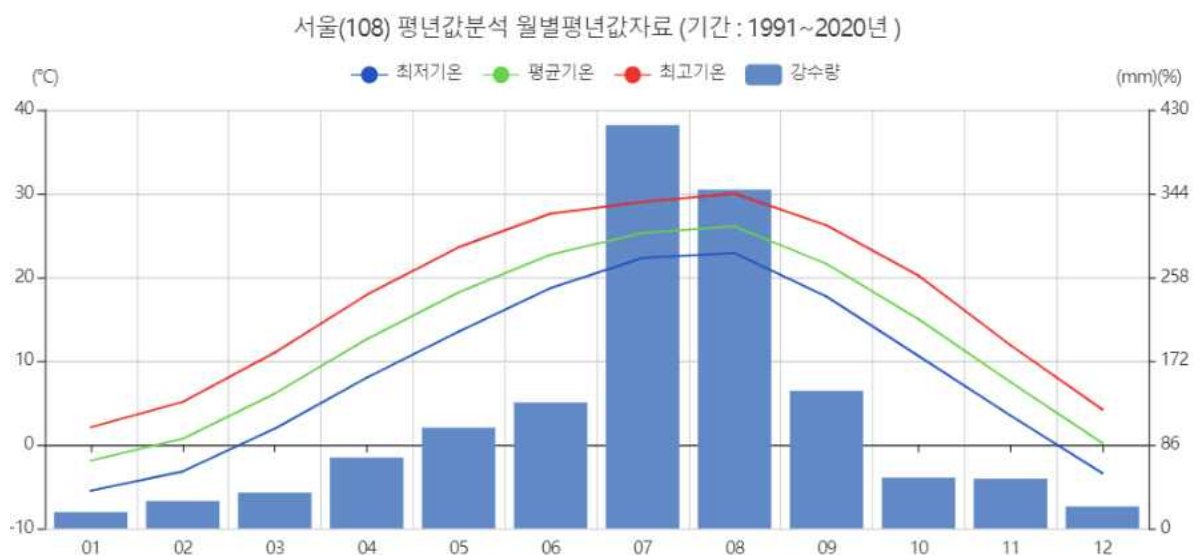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서울의 기후 특성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셋째, 식물의 뿌리는 수소이온을 내놓으며 토양 중의 양분이 흡수되면서 산성화가 진행된다. 식물은 이산화탄소(CO_2)와 물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 뿌리가 자라려고 이 광합성 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수소(H^+)이온이 나오게 된다. 이 수소이온이 토양입자에 붙은 양이온과 자리바꿈하면서 토양은 산성화되는 것이다(그림 3). 이것이 비료를 주지 않는 산림토양은 산성화가 심해졌지만, 토양을 개량해 주는 농경지 토양은 중성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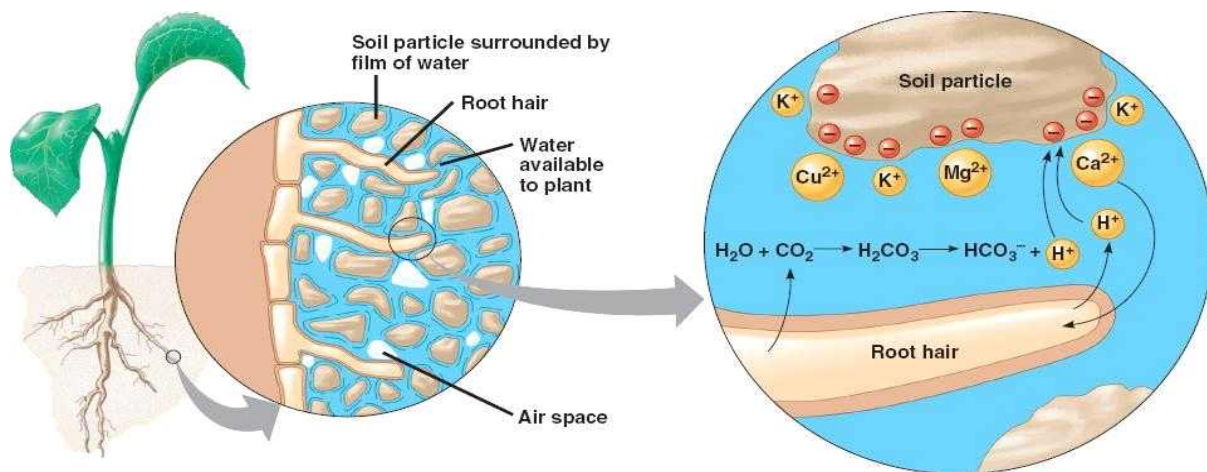


그림 3. 토양에서 이온교환에 의한 양분흡수 기작

넷째, 비료를 잘못 사용하면 토양을 버린다. 비료에는 석회와 같은 알칼리비료가 있고 유안, 황산가리, 용과린 같은 산성비료가 있다. 그런가 하면 요소, 용성인비와 같은 중성비료도 있다. 내 땅의 pH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그에 대응하는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회질 비료가 산성토양을 개량한다고 하니, 밭에 살포용 석회를 시설하우스에 더 준 결과 알칼리 토양이 된 경우도 자주 본다. 토양의 상태 변화를 살피면서 적절한 비료를 골라 사용하는 변화 관리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 자료 : 농축생태환경연구소 이덕배 대표 기고(2024.11.)

7 이달의 주요 인사

□ 농식품부 인사(11.18일자)

-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재형(기획재정담당관)
-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부이사관 정아름(농촌정책과장)
-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부이사관 이정석(농지과장)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바작원예
- 성분량 : 13-6-[8]+2+0.2+10(수용성칼슘)
- 특성 및 효과
 - 질산태질소로 작물이 빠르게 흡수
 - 수용성칼슘 10% 함유로 병충해 경감 및 품질향상 보조
 - 황산가리 함유로 당도와 향이 좋아지고 저장 기간 증가

□ (주)조비



- 제품명 : 미래로뿌리왕
- 성분량 : 11-8-[9]+1+0.3 (PCA 함유)
- 특성 및 효과
 - 질소, 인산, 칼리가 모두 한 개의 입자에 조립된 단립자 비료로 작물에 비료성분을 균일하게 공급하여 줌
 - PCA는 뿌리 발근을 좋게 하여 양분 흡수율 증대에 도움을 줌
 - 황산칼리(유황) 함유로 작물의 맛, 향, 색 등의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줌

□ (주)팜한농



○ 제품명 : 유황엔

○ 성분량 : 20-0-0+23S

○ 특성 및 효과

- 암모니아태 질소로 요소보다 효과가 빠르며 황 성분은 이온화가 쉽게 되어 작물에 흡수가 빠름
- 황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작물의 맛, 향, 때깔을 향상시키고 상품성을 높여줌
- 가루가 날리지 않는 입상형태로 일반시비, 기계시비, 관주 또는 엽면시비 등 사용이 편리

□ (주)풍농



○ 제품명 : 쌀플러스맛나

○ 성분량 : 12-6-6, 고토2, 붕소0.1, 규산5, 석회10

○ 특성 및 효과

- 필수 3요소와 고토, 규산, 석회, 붕소 및 유황 다량함유
- 고품질 쌀 수확을 위해 다량의 고토함유로 벼 생육, 미질향상
- 다량의 규산, 석회 함유로 멸구, 도열병 예방에 효과적
- 벼 가지거름 생략이 가능한 지효성 성질의 비료효과



비료와 식량

-2024년 11월호-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파워한번에OK

○ 성분량 : 22-6-9+1+0.1(코팅NK, 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고성능 완효성비료, 우수코팅 질소, 칼리 함유
- 한번 시비로 이삭거름까지 지속(90일 영양분 지속)
- 측조시비가 가능하며, 벼 생육주기에 알맞게 영양공급

□ (주)세기



○ 제품명 : 봉고동그리

○ 성분량 : 20+2(고토붕소비료, 유황함유)

○ 특성 및 효과

- 토양에 결핍되기 쉬운 고토, 붕소, 유황 등을 한번에 시비할 수 있어, 결핍증을 예방
- 입상제품으로 성분의 유실이 적고, 작물생육 기간에 서서히 녹아나와 양분 이용률을 높여줌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비료와 식량

-2024년 11월호-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발비료

○ 성분량 : 12-5-(7)+3+0.3

○ 특성 및 효과

- 기능성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해충 경감에 도움
- 부식산 함유로 토양개량효과 증대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작물의 품질(당도, 향) 향상

※ 무기질비료 사용안내서 인용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



무기질비료
가성비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

www.fert-kfia.or.kr



출처 : 농어촌공사 농촌경관사진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카프로